

한국어 증거성표지의 중복실현*

송재목

(오사카경제법과대학)

1. 머리말

동일한 문법범주에 속하는 문법표지들은 보통 하나의 술어에서 중복해서 실현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과거시제표지와 현재시제표지는 하나의 술어에서 함께 나타나지는 않는다. 그러나 같은 문법범주의 표지라 해도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의 술어에 중복해서 실현될 수 있는 문법범주들도 존재한다. 언어일반적으로 증거성(evidentiality) 표지는 하나의 술어에서 다른 증거성표지와 함께 사용될 수 있다. 한국어에는 다양한 증거성표지들이 존재한다(송재목 1998, 2007). 한국어 증거성표지들도 하나의 술어에 중복해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증거성표지들이 중복해서 사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증거성표지들의 조합에는 가능한 조합이 있고 그렇지 않은 조합이 있다. 이 글에서는 먼저 한국어 증거성표지들이 중복해서 실현될 수 있는 경우와 증거성표지의 중복실현에서 관찰되는 결합제약을 살펴보겠다. 그리고 한국어의 증거성표지들이 중복실현될 경우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지 살펴보겠다. 나아가 이들 증거성표지들의 중복실현과 의미를 증거성표지가 작용하는 통사영역의 차이로 설명하고자 한다.

* 이 글은 (사)한국언어학회 2009년 여름학술대회(2009.6.12-13, 부산대학교)에서 발표된 논문을 수정한 것이다.

2. 한국어 증거성표지

한국어에는 ‘직접지식’의 증거성표지와 ‘간접지식’의 증거성표지가 존재한다. 한국어에는 또한 ‘보고’표지가 존재한다. 한국어 직접지식의 증거성표지는 다시 증거의 획득시점에 따라 ‘과거의 직접관찰’을 나타내는 표지와 ‘현재의 직접관찰’을 나타내는 표지로 나누어진다(송재목 2007).

(1) 한국어의 증거성표지¹⁾

- 직접지식: 과거직접관찰: -더-
 현재직접관찰: -네²⁾
 간접지식: -겠-³⁾
 보고: -네⁴⁾

한국어에는 화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명제내용에 대한 정보를 직접 관찰했다는 직접지식을 나타내는 증거성표지가 두 개 존재한다. ‘-더-’는 명제내용에

- 1) 한국어에는 이 외에도 증거성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는 ‘-르 것이다, -가 보다’ 등과 같은 문법표현들이 존재하지만 이들은 모두 복합문구성이다. 이 글에서는 형태론적으로 술어에 붙어서 증거성의미를 나타내는 어미들만을 대상으로 하며 복합문구성에 의한 증거성표현은 논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 2) ‘-네’는 ‘현재의 직접관찰’이라는 증거성의미를 나타내는 경우와 달리 다음 예문 (ㄱ-ㄴ)과 같이 ‘하계체어미’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이 글에서는 이들을 별개의 형태소로 본다.
 - (ㄱ) 나는 내일 서울로 돌아가네.
 - (ㄴ) 그렇지, 자네 말이 옳네. 우리 경지는 집에서 일을 하니 나다닌다고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걸세.
- 3) ‘-겠-’은 ‘간접지식(추측)’의 증거성의미를 나타내는 경우와 달리 다음 예문 (ㄱ-ㄴ)과 같이 ‘화자의 의지’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이 글에서는 이들을 별개의 형태소로 본다.
 - (ㄱ) “불성실한 납세자나 탈세자는 철저히 추적해 과제하겠다”고 말했다.
 - (ㄴ) “우리 고유의 음악이면서 가요와 팝송에 밀리는 국악의 대중화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
- 4) 보고표지 ‘-네’는 인용구문의 보문소 ‘-고’와 상위문동사인 인용동사 ‘해’가 음운론적 축약을 동반하며 문법화한 것이다. 보고표지는 인용절의 문장형태(서법)에 따라서 ‘-다고 해 > -대, -라고 해 > 래, -자고 해 > -재’ 등과 같이 음운론적으로 축약된다.

대한 정보를 과거에 직접 관찰했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데 반해, ‘-네’는 현재의 발화시점, 발화장소에서 직접 관찰했다(또는 관찰하고 있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반면에 간접지식의 표지 ‘-겠-’은 화자가 명제내용에 대해 직접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고 간접적인 지식에 근거해 짐작한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보고 표지의 ‘-H’는 명제내용을 화자가 직접 관찰하거나 간접적인 지식에 의존해 추론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서 전해 들었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 (2) 철수가 학교에 가더라. (과거직접관찰)
- (3) 철수가 학교에 가네. (현재직접관찰)
- (4) 철수가 학교에 가겠다. (간접지식)
- (5) 철수가 학교에 간대. (보고)

3. 증거성표지의 중복실현

증거성표지들이 복수로 존재하는 언어에서는 하나의 절에 증거성표지가 둘 이상 겹쳐서 나타나기도 한다(Aikhenvald 2004:87-95). 예를 들어 Qiang어(Tibeto-Burman)에는 직접지식(visual)과 간접지식(inferred), 보고(reported)의 세 가지 증거성표지들이 존재한다. Qiang어에서는 아래에서 보듯이 직접지식표지 ‘-u’와 간접지식표지 ‘-k-’가 하나의 술어에서 동시에 실현될 수 있다(LaPolla 2003:69-70).

- (6) *oh, the: ʒbə ʒete-k-u!* ‘Oh, He WAS playing a drum!’
oh 2SG drum beat-INFR-VIS

예문 (6)은 옆집에서 들려오는 드럼소리를 듣고 가 봤더니 어떤 사람이 드럼이나 드럼채를 들고 있는 것을 보았을 경우 쓸 수 있는 표현이다. 즉 그 사람이 드럼을 치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 사람이 드럼을 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증거를 화자가 시각적으로 직접 획득하였을 경우

가능한 조합이다.

한국어에서도 증거성표지는 하나의 술어에 대해 두 개 이상 실현될 수 있다. 한국어에는 4 개의 상이한 증거성표지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계산할 경우 수십 개의 가능한 조합들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장에서 살펴볼 ‘간접지식(-겠-)+과거직접관찰(-더-), 간접지식(-겠-)+현재직접관찰(-네), 과거직접관찰(-더-)+보고(-H), 간접지식(-겠-)+보고(-H), 간접지식(-겠-)+과거직접관찰(-더-)+보고(-H)’의 5 가지 조합만이 가능하다. 이 글에서는 한국어에서 가능한 증거성표지의 중복실현과 중복실현에서 발견되는 결합계약, 그리고 증거성표지가 중복될 경우의 의미특성을 살펴보겠다.

3.1. 간접지식(-겠-)+직접지식(-더-/-네)

예문 (6)에서 본 Qiang어에서처럼 한국어에서도 하나의 술어에 간접지식과 직접지식의 표지가 함께 사용될 수 있다. 다음 예문에서 보듯이 한국어에서 간접지식의 표지 ‘-겠-’은 과거의 직접관찰을 나타내는 ‘-더-’와 함께 사용될 수도 있고(예문 7), 현재의 직접관찰을 나타내는 ‘-네-’와 함께 사용될 수도 있다.

- (7) 다음 달부터 기름값이 오르겠더라. (간접지식+과거직접관찰)
 (8) 다음 달부터 기름값이 오르겠네. (간접지식+현재직접관찰)

간접지식표지와 직접지식표지가 하나의 술어에 함께 사용되는 것은 모순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간접지식표지는 화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상황에 대해 직접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데 반해 직접지식표지는 화자가 직접 획득한 직접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따라서 이러한 조합은 표면상 모순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직접지식표지와 간접지식표지가 같은 술어에 동시에 실현될 경우 각각의 증거성표지는 관련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필요한 서로 다른 내용을 전달한다. 예문 (7)에서 간접지식표지 ‘-겠-’은 관련된 사건 [다음 달부터 기름값이 오르다]에 대한

정보가 화자의 직접적인 관찰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간접적인 지식에 기초한 것임을 나타낸다. 한편 뒤따르는 직접지식표지 ‘-더-’는 관련사건에 대한 화자의 추정이 직접적으로 화자가 관찰한 자료에 근거한 것임을 나타낸다. 화자가 관련기사를 실은 신문을 읽었거나 기름값에 대해 정통한 전문가로부터 상세한 이야기를 들었을 수도 있다.⁵⁾ 예문 (8)은 [다음 달부터 기름값이 오르다]라는 사건에 대한 정보가 간접적인 지식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그리고 그러한 추정이 직접적으로 화자가 관찰한 자료에 근거한다는 점에서는 예문 (7)과 동일하다. 그러나 그러한 추정에 이르게 되는 정보를 획득한 시점에 있어서 예문 (7)과 예문 (8)은 상이하다. 예문 (7)이 관련정보를 획득한 시점이 발화시보다 앞서는 과거인 것에 비해 예문 (8)은 현재의 시점에서 정보를 획득했거나 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이하다. 예문 (7)과 예문 (8)에서 관찰되는 사건시와 발화시, 정보획득시 사이의 시간관계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사건시:ET, 발화시:ST, 정보획득시:IT).

- (9) 다음 달부터 기름값이 오르겠더라.
 -----||-----||-----||-----
 IT ST ET
- (10) 다음 달부터 기름값이 오르겠네.
 -----||-----||-----
 ST=IT ET

(9, 10)을 통해 도식적으로 표현되는 것은 예문 (7)이나 (8) 모두 [다음 달부터 기름값이 오르다]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발화시보다 나중이다. 그러나 그러한 판단을 하게 되는 정보를 획득하는 시간은 예문 (7)의 경우에는 발화시보다 앞선 시점이지만 예문 (8)의 경우에는 발화시와 같은 시점이라는 것이다.

한국어에서 간접지식표지와 직접지식표지가 중복되어 사용될 때는 항상 간

5) 물론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은 그대로 인용하여 전달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보고 표지를 사용해야 한다.

(7) 다음 달부터 기름값이 오른다.

접지식표지(-겠)가 직접지식표지(-더-, -네)보다 앞서 나타난다. 예문 (11-12)와 같이 직접지식표지가 간접지식표지를 선행하는 문장은 비문이다.

(11) *다음 달부터 기름값이 오르더겠다.

(12) *다음 달부터 기름값이 오르네겠다.

예문 (12)의 ‘-네겠다’와 같은 형태가 허용되지 않는 것은 이들의 일부를 이루는 어미들의 증거성의미와 상관없이 형태론적으로 어말어미인 ‘-네’가 선어말어미인 ‘-겠-’의 앞에 올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예문 (11)에서 둘 다 선어말어미인 ‘-겠-’과 ‘-더-’의 어순은 왜 ‘-겠더-’로 고정되어 있고 ‘-더겠-’으로는 사용될 수 없는 것일까. 한 가지 가능한 의미론적 또는 화용론적인 해석은 증거성의 작용영역과 관련시켜 설명할 수 있다. 한국어에서 후행하는 어미는 선행하는 어미를 포함해서 앞부분 전체에 작용한다. 예문 (7)에서 간접지식의 ‘-겠-’은 다음 달부터 [기름값이 오르다]라는 사실에 대해 화자가 직접적인 관찰의 증거는 가지고 있지 않고 추정에 의한 간접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겠-’과 달리 후행하는 ‘-더-’는 직접지식을 나타낸다. 그러나 이 경우 ‘-더-’가 나타내는 과거직접관찰의 증거는 [다음 달부터 기름값이 오르다]라는 사실에 대한 직접관찰이 아니라 다음 달부터 기름값이 오를 수도 있다는 추정에 대한 또는 그러한 추정에 이르게 되는 증거를 직접 관찰하였다는 것을 나타낸다.

만약 예문 (11)과 같이 직접지식표지와 간접지식표지의 어순이 바뀐다면 어떤 의미를 나타내게 될까. ‘-더-’는 기름값이 오른다는 미래의 사실에 대해 화자가 과거에 직접 관찰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다음 달부터 기름값이 오르더라. ‘-더-’를 후행하는 ‘-겠-’은 기름값이 오르게 된다는 사실을 전하는 정보를 화자가 과거에 직접 관찰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화자가 다시 간접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러나 화자가 어떤 상황에 대해 직접 목격한 증거가 있다고 하면서 그러한 증거가 다시 간접적인 증거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은 서로 모순되는 내용이 된다. 예문 (11)에서 ‘-겠-’이 전달하는 의미가 모순되거나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면 백보 양보한다 하

더라도 잉여적인 정보가 되어 필요 없게 된다. 따라서 ‘-더겠-’의 결합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설명은 예문 (8)과 (12)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 즉 ‘-네겠-’의 연결은 ‘-네’가 어말어미이고 ‘-겠-’이 선어말어미라는 형태론적인 구성상에서도 허용되지 않지만 의미론적으로도 직접지식의 증거성표지가 간접지식의 증거성표지를 앞서고 있으므로 ‘-더겠-’과 마찬가지로 허용되지 않는 구성이다. 이러한 관찰에 따라 한국어의 증거성표지가 하나의 술어에 중복해서 실현될 때는 다음과 같은 결합제약이 있다고 할 수 있다.

(13) 한국어 증거성표지의 결합제약 I:

간접지식표지는 직접지식표지보다 앞선다.

위의 결합제약은 증거성표지의 중복실현에 있어서 간접적인 정보를 뒷받침하기 위한 직접적인 정보를 중복해서 표현할 수는 있으나 직접적인 정보를 뒷받침하는 간접적인 정보는 함께 사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뒤에서 보듯이 보고표지의 경우에는 직접지식표지나 간접지식표지의 구별 없이 함께 사용될 수 있다.

앞에서 본 Qiang어의 예문에서도 우리는 간접지식의 표지 ‘-k-’가 직접지식의 표지 ‘-u’를 선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증거성표지를 가진 다른 언어들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지만 (13)에서와 같은 증거성표지의 결합제약은 언어일반적으로도 의미있는 관찰일 수 있다. 즉 직접지식표지와 간접지식표지가 하나의 술어에 실현될 때는 우선순위가 있으며 간접지식표지가 직접지식표지에 앞서 실현된다는 것이다.⁶⁾

3.2. 과거직접관찰(-더-)+보고(-H)

한국어에서 보고표지는 다음에서 보듯이 하나의 술어에서 직접지식표지와

6) 한국어에서 증거성표지들은 용언어간의 뒤에 붙는 접미사의 형태로 실현되지만 증거성표지가 어간의 앞에 붙는 접두사일 경우에는 직접지식표지가 간접지식표지를 앞설 것으로 예측된다. 즉 어느 경우이나 간접지식표지가 직접지식표지보다 어간에 가까운 곳에 위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함께 실현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지식은 과거의 직접관찰을 나타내는 ‘-더-’만이 허용되고 현재의 직접관찰을 나타내는 ‘-네’는 허용되지 않는다.

(15) 철수가 학교에 가더래. (철수가 학교에 가더라고 해.)

(16) *철수가 학교에 가네래. (철수가 학교에 가네라고 해.)

증거성표지에서 표현되는 관련정보를 획득하여 전달하는 사람은 화자이다. 그러나 한 문장에서 증거성표지가 복수로 존재할 경우 정보의 획득자는 반드시 화자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특히 증거성표지가 보고표지와 함께 사용될 경우 정보의 일차적인 획득자는 화자가 아니라 제3자이다. 과거직접관찰의 표지 ‘-더-’ 다음에 보고표지가 따라올 경우 증거성표지의 정보획득자들은 각각 상이한 주체가 된다. 예문 (15)에서 [철수가 가다]라는 명제에 대한 1차적인 정보획득자는 화자도 청자도 철수도 아닌 제3의 인물로 문장에서는 표현되어 있지 않다. 다만 그가 획득한 정보가 과거의 감각적인 관찰에 의한 직접적인 정보라는 것이 ‘-더-’에 의해 표현된다. 그리고 화자는 그 정보를 획득한 사람으로부터 직접 전해 들었다는 의미를 보고표지 ‘-H’에 의해 전달하고 있다. 즉 예문 (15)에서 ‘-더-’가 나타내는 정보획득의 주체와 ‘-H’가 나타내는 정보획득의 주체는 서로 다른 것이다. ‘-더-’와 ‘-H’의 정보획득의 주체가 동일인이라면 그것은 관련된 정보를 자신이 과거에 직접 획득했다고 하면서 또한 제3자로부터 전해들은 정보라는 서로 모순되는 내용을 전달하게 된다. 과거직접관찰의 표지 ‘-더-’와 달리 현재직접관찰의 표지 ‘-네’는 보고표지와 함께 사용되지 않는다(예문 16). 이는 화용론적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네’는 명제에 대한 정보를 발화시점, 발화장소에서 직접 획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화자와 청자는 발화시 같은 장소에 존재하므로, 화자가 발화시에 관찰하는 것은 청자도 직접 관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설사 관련정보에 대해 청자가 알아채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화자로부터 그 정보를

7) Tsafiki어(Barbacoan: 콜롬비아, 에쿠아도르)에는 4개의 증거성표지가 있다(direct, inferred, assumed, reported). 이 언어에서도 보고표지는 다른 증거성표지들과 함께 사용될 수 있다고 한다(Dickinson 2000:408, Aikhenvald 2004:90-91).

듣는 순간 청자는 직접적으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되며 화자의 직접지식은 곧 청자 자신에 의한 직접지식이 된다. 따라서 청자가 이를 제3의 인물에게 전달할 경우에 그 정보는 이미 청자 자신의 직접지식의 영역 안에 들어와 있으므로 직접지식의 표지로 전달하며 보고표지로 전달하지는 않는다. 친구 세 명이 꽃집으로 들어가서 꽃을 고르는 장면을 생각해 보자. 친구 갑이 장미꽃을 보고 “야, 참 예쁘네.”라고 했을 때 옆에 있던 친구 을이 그 장미꽃을 보고 친구 병에게 얘기할 때 자기도 예쁘다고 느꼈을 경우에는 “정말이네, 진짜 예쁘네.”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장미꽃을 아직 보지 못했을 경우에는 “장미꽃이 예쁘대.”라고 한다. 그 장미꽃을 보았을 경우에도 예쁘다고 생각하지 않을 때는 “장미꽃이 예쁘네”가 아니라 “이게(장미꽃이) 예쁘대.”라고 할 것이다. 즉 같은 장소에서 함께 관찰할 수 있는 정보를 전해 들었을 경우에는 이를 보고표지에 의해 전달하지 않고 화자의 직접관찰로 표현하는 것이다.⁸⁾ 따라서 한국어에서 현재직접관찰의 표지 ‘-네’는 보고표지와 함께 사용되지 않는다.

(17) 한국어 증거성표지의 결합제약 II:

현재직접관찰의 표지와 보고표지는 함께 사용되지 않는다.

현재직접관찰표지와 보고표지가 함께 사용되지 않는 것은 한국어에서만만 아니라 증거성표지의 중복실현을 허용하는 다른 언어들에서도 보편적으로 관찰될 것으로 예상된다.

8) 전화나 인터넷 채팅과 같이 화자가 정보를 전해준 사람과 같은 장소에 있지 않고 따라서 그 상황을 직접 관찰할 수 없을 경우에 전해들은 정보를 전달할 경우에는 보고표지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직접지식표지가 보고표지와 함께 사용되지는 않는다. 정보를 전달한 사람이 “장미꽃이 예쁘네”와 같이 현재직접관찰의 표지를 사용해 정보를 전달한 경우에도 청자가 이를 제3자에게 전할 경우 “장미꽃이 예쁘네래”라고는 하지 않는다. 다음과 같이 직접지식의 증거성표지를 사용하지 않고 정보표지만을 사용하는 예문 (ㄱ)이나 상위문 인용동사에 직접관찰표지를 붙인 예문 (ㄴ)과 같이 표현한다.

(ㄱ) 장미꽃이 예쁘네.

(ㄴ) 장미꽃이 예쁘다네.

직접지식표지와 보고표지가 함께 사용될 경우 보고표지는 항상 직접지식표지의 뒤에 온다. 이것은 보고표지의 생성과정에 의해 생겨나는 당연한 결과이다. 보고표지 ‘-h’는 인용구문에서 보문자와 상위문의 술어로 이루어진 ‘-고해’가 문법화한 형태로, 인용구문에서 상위문이 내포문을 후행하는 한국어 어순에 있어서 원래 인용절의 술어에서 실현되는 다른 증거성표지들의 뒤에 위치하게 된다.

3.3. 간접지식(-꺄-) + 보고(-h)

Bora어(페루)에서는 직접지식(direct), 간접지식(nonwitnessed), 보고(reported)의 세 가지 증거성을 구별하며 간접지식(inferred)표지와 보고(reported)표지가 하나의 절 안에서 실현될 수 있다(Wise 1999:329, Aikhenvald 2004:91).

(18) *Hotsée-βá-ʔhá-p^he umiβá khuuβá-ʔóo-ha-tu*

Joseph-REP-Nonwitnessed-Past escaped dark-room-house-from
 ‘Joseph escaped from jail a while back (the one who told me
 was not a witness)’

예문 (18)에서 보고표지(-βá-)는 화자가 조셉이 감옥에서 탈주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반면에 간접지식표지(-ʔhá-)는 화자에게 그 소식을 전한 사람도 그 사건을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라 간접적인 증거에 의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한국어에서도 간접지식표지와 보고표지가 하나의 술어에 함께 사용될 수 있다.

(19) (엄마가 그러는데) 언니 이 옷 입으면 예쁘꺄대.

(20) 엄마는 진우 얘기가 우스워 죽꺄대.

간접지식표지와 보고표지의 결합은 화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명제에 대한

정보가 제3자에 의해 간접적으로 획득되었으며 이것을 화자가 전해 들었다는 의미를 나타낸다.⁹⁾ 예문 (19)에서 [언니(가) 이 옷을 입으면 예쁘다]는 상태에 대한 간접적인 증거를 획득한 것은 ‘화자의 엄마’이며 화자는 엄마가 간접적으로 획득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간접지식표지와 보고표지가 함께 실현될 경우에도 과거직접관찰의 표지와 보고표지가 중복해서 실현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간접지식표지가 보고표지를 선행한다. 즉 한국어에서 보고표지는 언제나 다른 증거성표지의 뒤에 위치한다.

(21) 한국어 증거성표지의 결합제약 III:

보고표지는 다른 증거성표지의 뒤에 위치한다.

3.4. 간접지식(-겠-)+직접지식(-더-)+보고(-ㅁ)

한국어에서는 하나의 술어에 세 개의 증거성표지가 실현될 수도 있다.¹⁰⁾

(22) 틈이 너무 작아서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겠더라.

(23) 다음 달부터 기름값이 오르겠더라.

9) 간접지식표지 ‘-겠-’와 보고표지의 결합이 항상 자연스러운 것은 아니다. 다음 예문들에서는 간접지식표지와 보고표지의 결합이 부자연스럽다.

(ㄱ) [?]내일부터 날씨가 추워지겠다.

(ㄴ) 내일부터 날씨가 추워진다.

(ㄷ) [?]기름값이 다음 달부터 오르겠다.

(ㄹ) 기름값이 다음 달부터 오른다.

각주(3)에서 보았듯이 ‘-겠-’은 화자의 의지를 나타낼 수도 있다. 따라서 ‘-겠다’의 결합은 피인용자의 의지를 나타내는 표현으로도 이용된다. 실제 용례에서는 간접지식표지의 ‘-겠다’보다는 의지표지의 ‘-겠다’가 더 많이 관찰되는 것으로 보인다.

(ㄱ) 칠수가 내일 오겠다.

(ㄴ) 칠수는 영희랑 꼭 결혼하겠대.

10) 세 개 이상의 증거성표지가 하나의 술어나 절에서 실현되는 예는 다른 언어들에서 보고된 것이 없다. 그러나 복수의 증거성표지를 가진 언어들에서는 충분히 관찰될 수 있는 결합으로 여겨진다. 세 개 이상의 증거성표지가 다른 언어들에서는 관찰되는지, 관찰된다면 어떤 식으로 결합되는지 추후의 연구과제이다.

우리는 간접지식표지와 직접지식표지가 하나의 술어에서 함께 사용될 경우 간접지식표지가 직접지식표지를 앞선다는 것을 (3.1)절에서 보았다. ‘간접지식+직접지식+보고’의 결합에서도 간접지식표지는 항상 직접지식표지를 앞선다.

(24) *틈이 너무 작아서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더겠대.

(25) *다음 달부터 기름값이 오르더겠대.

또한 (3.2)절에서 직접지식표지와 보고표지가 함께 사용될 때는 과거의 직접관찰을 나타내는 ‘-더-’만을 허용하고 현재의 직접관찰을 나타내는 ‘-네’와는 함께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았다. ‘간접지식+직접지식+보고’의 결합에서 허용되는 직접지식표지도 과거의 직접관찰을 나타내는 ‘-더-’이고, 현재의 직접관찰을 나타내는 ‘-네’는 사용되지 않는다.

(26) *틈이 너무 작아서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겠네래/없네겠대.

(27) *다음 달부터 기름값이 오르겠네래/오르네겠대.

(3.2)절과 (3.3)절에서 보고표지는 항상 증거성표지의 결합에서 형태론적으로 가장 마지막 위치에 나타난다. ‘간접지식+직접지식+보고’의 결합에서도 보고표지는 제일 마지막에 위치한다.

3.5. 증거성표지의 중복실현에 대한 결합제약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한국어에서 증거성표지는 중복해서 실현될 수 있으나, 증거성표지의 중복실현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존재한다. 앞에서 본 증거성표지의 결합제약 외에도 한국어에서는 다음과 같은 증거성표지의 결합제약이 존재한다. 한국어에서 과거의 직접관찰을 나타내는 ‘-더-’와 현재의 직접관찰을 나타내는 ‘-네’는 함께 사용될 수 없다.

(28) *철수가 학교에 가네더라.

(29) *철수가 학교에 가더네.

예문 (28)이 불가능한 것은 ‘-네’가 어말어미이므로 선어말어미 ‘-더-’의 앞에 올 수 없다는 형태론적 이유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예문 (29)의 경우에는 선어말어미 ‘-더-’가 어말어미 ‘-네’의 앞에 위치하고 있으며 따라서 ‘-더-’나 ‘-네’의 형태론적 특성으로 설명될 수는 없다. ‘-더-’와 ‘-네’의 결합이 허용되지 않는 것은 이들 어미들의 의미론적 이유에서는 자명하다. ‘-더-’는 어떤 상황/사건에 대해 과거에 직접 관찰한 증거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지만 ‘-네’는 현재 직접 관찰하고 있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하나의 사건/상황에 대해 화자가 전달하는 명제의 정보가 과거에 직접 관찰한 증거에 근거한 것이라고 하면서 동시에 그 정보가 현재 관찰한(또는 관찰하고 있는) 증거라고 전달하는 것은 서로 모순되는 내용이다. 따라서 이러한 표현은 적합하지 않다.¹¹⁾

(30) 한국어 증거성표지의 결합제약 IV:

과거직접관찰표지와 현재직접관찰표지는 함께 실현되지 않는다.

(3)장에서 살펴본 한국어 증거성표지의 중복실현에서 관찰되는 결합제약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31) 한국어 증거성표지의 결합제약

- ㄱ. 간접지식표지는 직접지식표지보다 앞선다.
- ㄴ. 현재직접관찰표지와 보고표지는 함께 실현되지 않는다.
- ㄷ. 보고표지는 다른 증거성표지의 뒤에 위치한다.
- ㄹ. 과거직접관찰표지와 현재직접관찰표지는 함께 실현되지 않는다.

11) 만약 두 가지 정보를 모두 전달하고자 한다면 적어도 한국어에서는 별개의 문장으로 분리해야 한다.

(ㄱ) 철수가 학교에 가네. 요즘은 참 착실해졌어. 어제도 보니까 아침 일찍부터 가더라고.

위의 문장에서 철수가 현재 학교에 가는 것을 화자가 직접 관찰하였다(관찰하고 있다)는 의미는 현재직접관찰의 표지 ‘-네’에 의해 표현되고, 철수가 학교에 가는 것을 화자가 과거(어제)에 직접 관찰하였다는 의미는 과거직접관찰의 표지 ‘-더-’에 의해 표현되고 있으며 이들은 서로 별개의 분리된 문장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제약들로 인해 한국어의 증거성표지들은 산술적으로 가능한 수십 가지의 조합 중에서 실제 가능한 조합은 이 장에서 살펴본 5 가지에 불과하다.

4. 증거성표지의 통사영역

서로 상반되는 성질의 증거성표지들이 하나의 술어에서 실현되는 것은 일견 모순되는 것처럼 보인다. 같은 사건/상황을 전달하면서 그 사건/상황에 대한 정보가 간접적으로 획득된 것이라고 하면서 또한 직접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얼핏 서로 모순되는 정보가 하나의 문장 안에서 전달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한국어에서 증거성표지들이 하나의 술어에서 중복 실현될 경우 그 증거성표지들은 각각 상이한 작용영역을 가지며 각각의 증거성표지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는 하나의 사건/상황에 대한 서로 상반되는 모순적인 정보가 아니라 상호보완적이며 보다 섬세한 정보내용의 전달을 가능하게 한다.

유형론적으로 한국어가 다른 언어들과 구별되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하나의 술어에 다수의 어미가 교착적으로 첨부될 수 있다는 것이다. 3장의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어용언의 형태론적 구조는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다.¹²⁾

(32) 한국어 용언의 구조¹³⁾

12) 한국어 용언의 형태론적 구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상이한 분석들이 존재한다. 고영근(2004:167)에서는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ㄱ) 하 -시 -었 -겠 -사오 -비 -니 -ㄴ -다

어간 존경 시제 서상 겸손 합쇼체 직설법 원치법 다

반면에 김석득(1994:187)에서는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ㄴ) 깨 -뜨리 -이 -시 -었 -습 -더 -이 -다

뿌리 세기 하임 높임 시상 높임 시상 높임 마침

13) 보고표지는 인용문의 보문자와 상위문동사(인용동사)가 축약되어 문법화한 형태지만 원래의 동사적인 성격을 완전히 상실한 것은 아니다. 한국어에서 인용동사는 다양한 형태로 축약이 되며 그 자체가 다시 시제표지나 증거성표지 등을 취할 수 있다. 다음 예문에서와 같이 인용동사가 다시 시제표지나 증거성표지를 취하는

어간+(주체존대)+(시제)+(간접지식)+(직접지식)+서법+(보고)
 (예: 가-(시)-(있)-(겠)-(더)-라-(H))

이 글에서는 우순조(1998)를 따라 한국어 어미를 통사론적 단위로 파악한다. 14) 한국어에서 어미들은 독자적인 통사적 단위를 형성하며 각각 독자적인 통사적 작용영역을 가진다.

한국어에서 어미들은 통사적인 경계를 넘어 왼쪽으로 통사적인 투시가 가능하나 오른쪽으로는 통사적인 투시가 불가능하다. 즉 용언어간 쪽에 가까운 어미들은 먼 쪽의 어미들의 통사영역 안에 들어가는데 반해, 용언어간에서 먼 쪽의 어미들은 가까운 쪽 어미의 통사영역 속에 들어가지 않는다. 개별 어미들의 통사영역은 어간 쪽으로 형성되며 자신보다 왼쪽에 있는 어간에 가까운 어미들의 통사영역을 모두 포함한다.

(33) 한국어 어미들의 통사영역:

한국어에서 어미들은 왼쪽으로 통사영역의 경계를 넘어 투시할 수는

형태는 이 글에서 논의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ㄱ) 철수가 학교에 간다네. (간다고 하네)

예문 (ㄱ)에서 ‘간다네’는 표면적으로 ‘가-ㄴ-다-네(동사어간-현재시제-서술법-현재직접관찰)’과 같이 분석된다. 그러나 ‘간다네’는 ‘간다고 하네’의 축약으로, 예문 (ㄱ)의 현재직접관찰표지 ‘네’는 서술어 ‘가다’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인용동사 ‘하다’의 일부를 이룬다. 즉 ‘네’는 [철수가 학교에 가다]라는 상황에 대해 화자가 직접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을 전달한 사람의 행위, 즉 상위문동사 ‘하다’에 의해 표현되는 행위에 대해 화자가 직접 관찰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예문 (ㄱ)과 같은 경우는 이 글에서 분석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14) 우순조(1998)에서는 한국어 조사와 어미를 형태론적 단위가 아니라 통사론적 단위로 파악하고 조사와 어미를 ‘표지’라고 부르며, ‘한국어의 모든 표현은 핵어구가 이루는 통사적 구성체와 그것의 담화적/통사적 기능을 표시하는 표지의 연쇄’라고 일반화하고 있다(우순조 1998:314).

(ㄱ) [NP]-Marker(s)

(ㄴ) [VP]-Marker(s)

(ㄷ) [XP]-Marker(s)

그러나 어미들이 복수 존재할 경우 각각의 어미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있으나 오른쪽으로 경계를 넘어 투시할 수는 없다.

하나의 술어에 중복실현되는 증거성표지들은 각각 서로 상이한 통사적 작용영역을 가진다. 예문 (8)에는 하나의 술어에 간접지식과 직접지식의 증거성표지 두 개가 사용되고 있다. 이 예문에서 각각의 증거성표지는 서로 상이한 통사적 영역에서 작용한다. 예문 (8)(예문 34에서 반복)의 어미들이 작용하는 통사영역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¹⁵⁾

(34) 다음 달부터 기름값이 오르겠네.

[PRESENT SENSORY [INFERENCE [PROPOSITION 다음 달부터 기름값이 오르-] -겠-] -네]

예문 (8)에서 간접지식의 표지 ‘-겠-’이 작용하는 영역은 [다음 달부터 기름값이 오르-]이다. 즉 [다음 달부터 기름값이 오르다]라는 사실에 대해 화자가 간접적인 지식을 가지고 추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반면에 현재의 직접관찰을 나타내는 직접지식의 표지 ‘-네’가 작용하는 영역은 [다음 달부터 기름값이 오르겠-]이다. ‘-네’는 [다음 달부터 기름값이 오르다]라는 사실에 대해 화자가 추정을 하는 근거가 발화시의 직접적인 관찰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증거성표지 ‘-네’는 어간에 가까운 ‘-겠-’을 자신의 통사영역 안에 두고 있지만 반대로 ‘-네’는 ‘-겠-’의 통사영역 안에 들어가지는 않는다. 즉 ‘-겠-’이 ‘-네’를 투시할 수는 없으며 따라서 반대의 의미로 해석될 수는 없다.

예문 (23)(예문 35에서 반복)에서는 하나의 술어에 증거성표지 3개가 중복하여 실현되고 있다. 이들 증거성표지의 작용영역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35) 다음 달부터 기름값이 오르겠더라.

15) 각각의 괄호는 동사구(verb phrase)를 형성하는 것으로 본다. 괄호 안의 왼쪽에 붙인 꼬리표는 가장 바깥쪽 층위의 통사단위가 부여하는 의미기능을 나타낸다.

[REPORTED [DECLARATIVE [PAST SENSORY [INFERENCE [PROPOSITION 다음
달부터 기름값이 오르-] -겠-] -더-] -라] -H]

예문 (23)에서 간접지식의 표지 ‘-겠-’이 작용하는 부분은 예문 (8)에서와 같이 [다음 달부터 기름값이 오르-]라는 동사구이다. 과거의 직접관찰을 나타내는 직접지식의 표지 ‘-더-’가 작용하는 영역은 [다음 달부터 기름값이 오르겠-]이다. ‘-더-’는 [다음 달부터 기름값이 오르다]라는 사실에 대해 추정을 하는 근거가 과거의 직접관찰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어미 ‘-라’는 [다음 달부터 기름값이 오르겠더-]라는 정보를 평서문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마지막에 보고표지 ‘-H’는 [다음 달부터 기름값이 오르겠더라]라는 정보는 화자가 제3자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어미들의 통사영역은 꼭 증거성표지들만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증거성표지는 예문 (36-39)에서 보듯이 시제표지와 함께 사용될 수도 있다.

- (36) ㄱ. 철수가 학교에 가더라.
 ㄴ. 철수가 학교에 갔더라.
- (37) ㄱ. 철수가 학교에 가네.
 ㄴ. 철수가 학교에 갔네.
- (38) ㄱ. 철수가 학교에 가겠네.
 ㄴ. 철수가 학교에 갔겠네.
- (39) ㄱ. 철수가 학교에 간대.
 ㄴ. 철수가 학교에 갔대.

한국어에서 증거성표지들은 모두 과거시제표지 ‘-았-’과 함께 쓰일 수도 있고 ‘-았-’ 없이 쓰일 수도 있다. 예문 (36ㄱ)과 예문 (36ㄴ)의 차이는 과거시제표지 ‘-았-’의 존재이다.

- (40) [DECLARATIVE [PAST SENSORY [PROPOSITION 철수가 학교에 가-] -더-] -라]
(41) [DECLARATIVE [PAST SENSORY [PAST [PROPOSITION 철수가 학교에 가-] -았-] -더-] -라]

예문 (36ㄱ, 40)에서는 직접지식표지 ‘-더-’는 [철수가 학교에 가-]라는 명제에 대해 과거에 관찰한 직접적인 증거가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반면에 예문 (36ㄴ, 41)에서는 [철수가 학교에 가-]라는 명제가 먼저 과거시제표지 ‘-있-’의 작용을 받으며 따라서 과거에 일어나 완료된 사건임을 나타낸다. 과거시제표지 ‘-있-’의 뒤에서 출현하는 ‘-더-’는 앞부분 전체를 통사적 작용영역으로 삼게 되고 이는 ‘-더-’에 의해 표현되는 과거의 직접적 관찰의 대상이 되는 것은 [철수가 학교에 가다]라는 진행중인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이 과거에 일어나 완료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를 화자가 직접적으로 관찰했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32)에서 본 ‘가셨겠더라고요’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분석될 수 있다.

(42) 가셨겠더라고요.

[REPORT [DECLARATIVE [PAST SENSORY [INFERENCE [PAST [AO POLITE
[PROPOSITION 가-] -시-] -있-] -겠-] -더-] -라] -ㅁ]

(AO POLITE: agent-oriented politeness)

5. 맺음말

이 글에서는 한국어 증거성표지가 하나의 술어에 중복하여 출현하는 경우를 살펴보았다. 한국어에는 4 개의 증거성표지가 있다: 과거직접관찰 ‘-더-’, 현재직접관찰 ‘-네’, 간접지식 ‘-겠-’, 보고 ‘-ㅁ’’. 한국어의 증거성표지는 하나의 술어에서 중복출현이 가능하지만 이들의 결합에는 다음과 같은 제약이 존재한다: i) 간접지식표지는 직접지식표지보다 앞선다, ii) 현재직접관찰표지와 보고표지는 함께 실현되지 않는다, iii) 보고표지는 다른 증거성표지의 뒤에 위치한다, iv) 과거직접관찰표지와 현재직접관찰표지는 함께 실현되지 않는다. 이러한 제약으로 인해 증거성표지가 한국어에서 하나의 술어에 함께 실현될 수 있는 것은 ‘간접지식+과거직접관찰, 간접지식+현재직접관찰, 과거직접관찰+보고, 간접지식+보고, 간접지식+과거직접관찰+보고’의 5 가지만이 가능하다.

이들이 중복출현할 경우 각각의 증거성표지는 독자적 통사영역을 형성하며 증거성의 의미는 그 통사영역 안에서 작용한다. 증거성표지의 중복실현에 대한 연구는 학계에서 아직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국어에서 관찰되는 증거성표지의 결합계약은 언어일반적으로도 의미 있는 제약일 수 있다.

❖ 참 고 문 헌

- 고영근, 『국어의 시제 서법 상』, 태학사, 2004.
- 김석득, 『우리말 형태론-말본론』, 탑출판사, 1994.
- 송재목, 「안맺음씨끝 ‘-더-’의 의미기능에 대하여: 유형론적 관점에서」, 『국어학』 32, 135-169, 1998.
- 송재목, 「증거성(evidentiality)과 주어계약의 유형론- 한국어, 몽골어, 티베트어를 예로 들어-」, 『형태론』 9권1호, 1-23, 2007.
- 우순조, 「모빌구조와 표지이론에 의한 한국어 통사의미 기술」, 『언어학』 22, 한국언어학회, 291-328, 1998.
- Aikhenvald, A.Y., *Evidentialit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 Aikhenvald, A.Y. & R.M.W. Dixon, *Studies in Evidentiality*, Amsterdam: John Benjamins, 2003.
- Dickinson, C., “Mirativity in Tsafiki”, *Studies in Language* 24, 379-421, 2000.
- LaPolla, R.J., “Evidentiality in Qiang”, in Aikhenvald and Dixon (eds.), 63-78, 2003.
- Wise, M.R., “Small language families and isolates in Peru”, in Dixon and Aikhenvald (eds.) *Changing Valency: Case Studies in Transitivi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307-40, 1999.

❖ ABSTRACT

Multiple Marking of Evidentials in Korean

Jaemog Song

This paper investigates multiple marking of evidentials in Korean. Korean has 4 evidential markers: Present Sensory *-ney*, Past Sensory *-te-*, Inference *-keyss-*, Reported *-ay*. Korean allows evidential marked more than once in the same clause. Not all the possible combinations of evidential markers are, however, observed in Korean. Only five combinations of evidential markers are allowed: Inference followed by Past Sensory (*-keyssste-*), Inference followed by Present Sensory (*-keyssney*), Past Sensory followed by Reported (*-teray*), Inference followed by Reported (*-keyssstay*), Inference followed by Past Sensory and Reported (*-keysssteray*). Multiple making of evidentials in Korean seems to follow combination restrictions: i) Inference comes before Direct Knowledge, ii) Present Sensory and Reported cannot be marked in the same clause, iii) Reported must come after other evidential markers, iv) Past Sensory and Present Sensory cannot be marked in the same clause. Because of these restrictions, only 5 out of dozens possible multiple evidential marking combinations are observed in Korean. This paper takes inflectional suffixes including evidential markers in Korean as syntactic markers and argues that syntactic markers have their own scope and contribute semantic meaning to the scope not to the full sentence. Evidential markers in double marking have different syntactic scope and add not contradictory but complementary meanings to the preposition to express subtle and delicate evidential-related meanings.

Key Words

증거성, 중복실현, 현재직접관찰, 과거직접관찰, 간접지식, 보고.

evidential, double marking, Present Sensory, Past Sensory, Inference, Reported.

논문접수일: 2011. 01. 16.

심사완료일: 2011. 02. 22.

게재확정일: 2011. 03. 10.